

전남 최초 비대면 대회, '전남청소년역사탐구대회' 성료

도내 중·고교 60여팀 예선...14팀 본선대회서 열띤 경연 펼쳐 '전남 근현대사·전남지역 친일잔재 실상·해결방안' 주제 지역사 통해 피부로 느끼는 역사의식·상상력 기르도록 기획

제10회 전남청소년역사탐구대회가 9월 19일, 성공적인 온라인대회로 치러져 화제가 되고 있다.

도내 중·고등학교 60여팀이 예선을 거쳐, 14팀이 본선대회에서 열띤 경연을 펼쳐 온라인 상에서 그 열기가 뜨거웠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대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언택트 뉴노멀 시대에, 비대면 대회도 가능함을 확인시켰다는 평가다.

전남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주최하고 전남역사교사모임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남의 근현대사와 전남지역의 친일잔재의 실상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한정하여, 학생들이 지역사를 통해 피부로 느끼는 역사의식과 상상력을 기르도록 기획됐다.

참가팀들은 사적지 답사를 바탕으로 연구보고서와 UCC분야로 구분하여 출전했다.

본선 대회에는 전년도 입상 팀들이 다수 탈락하고 새로운 팀이 많이 등장했다.

심사자와 경쟁팀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몰입도와 긴장감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해가 거듭할수록 참가팀이 증가하고 발표 수준도 향상되어 대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주요 입상작을 살펴보면, 목포의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문태중의 '목포 오월의 길을 걷다'와 학도병으로 참가한 모교 선배들을 다룬 여수고의 '잊혀진 영웅들'이 금상을 받았다.

특히, 영예로운 대상은 '잊혀진 독립운동가

장재성'을 주제로 발표한 장흥고 UCC팀(지도교사 정제성)이 수상했다.

이 팀은 장흥고 학생 역사동아리 '의열단'(하동현, 이주빈, 문준서, 정예훈, 길민규, 김강산)으로 완성도 높은 영상과 뛰어난 발표능력으로 심사위원들과 청중들을 감동케 했다.

하동현 학생은 "역사 속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활동으로 다시금 독립운동가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독립운동가 장재성의 서훈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석웅 교육감은 인사 말씀에서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말을 소개하며, 우리 선배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민주와 평화, 인권과 정의, 사랑과 연대의 가치를 꼭 띄우는 주제로서 우리 학생들이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대회를 주관한 전남역사교사모임 박래훈 회장(순천별량중학교 교사)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비대면 대회에 걱정이 많았는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질 높은 대회가 됐다. 학생들의 높은 역사에 대한 관심에 흐뭇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지역사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우리 고장에 대한 역사의식과 자긍심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학생들의 높은 역사에 대한 관심에 흐뭇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지역사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우리 고장에 대한 역사의식과 자긍심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여수교육청, 원격수업 내실화 방안 찾아 교원들 함께 머리 맞대

초·중 교감 및 원격수업 업무담당자 92명 대상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대)은 지난 9월 14일에 초·중 교감 및 원격수업 업무담당자 92명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운영 지원 및 내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8개 분임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회의는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 현황 공유, 수업준비 및 운영에서의 교사들의 애로사항 청취, 교육지원청 요구사항 파악,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여수 관내 원격수업 운영현황을 보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초등의 몇몇 학교를 제

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콘텐츠 활용 중심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격수업에 있어 교사들의 애로사항으로는 동영상 및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의 많은 시간 소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부족, 쌍방향 실시간 수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장비 부족, 학생들의 수업 참여 독려 등을 들었다.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피드백 제공과 점진적인 쌍방향 실시간 수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노트북, 웹캠, 듀얼모니터 등의 신

속한 장비 제공과 실습형 교원연수, 원격수업 이해 제고를 위한 학부모 연수, 원격수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개설 등을 요구하였다.

향후 여수교육지원청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판(Q&A)을 개설하여 원격수업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상 원격수업 실습 연수, 학부모 대상 원격수업 이해 및 홍보 연수, 교원 대상 원격수업 내실화 사례 공유 소규모 토론회 실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활용한 원격수업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영광교육청, '학력격차해소, 한글책임교육 구현'서 시작

초기 문해력교육 교원역량강화 연수 운영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허호)은 지난 7월 1일에 이어 9월 18일에 한글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1·2학년 담임교사 및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초기 문해력교육 교원역량강화 2차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5·6월에 실시한 초기 문해력교육 교원역량강화 원격연수에 이은 실용연수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센터 양지숙 장학관의 강의로 운영되었다.

기본적인 언어소통만 되면 누구든 한글을 읽을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가르치

는 방법을 직접 실행하는 과정으로 연수가 진행되었다.

지난 1차 연수에서는 모음자와 자음자 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습하였고, 9월 18일에 실시한 2차 연수에서는 소리 찾기와 받침 익히기 지도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1학년 담임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글을 쉽게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방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고, 특히 2차 연수에서는 1차 연수 내용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여 학생을 지도한 사례와 지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봤는데 앞으로 학생 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광주시교육청,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운남중 '파토스' 출연

가수 송가인, 광주지역 학생들 향한 응원의 메시지 전달



업 후 광주 지역 학생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왔으며, 광주시교육청의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출연 제안에 흔쾌히 수락했다.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두 번째 영상에서 운남중 학생 밴드 '파토스' 학생들이 소개됐다.

'파토스'는 2학년 박해인(보컬)·박수린(베이스기타)·정지호(드럼)·조예원(건반) 학생들로 구성됐다.

'파토스'는 운남중 이남(기타) 담당교사와 함께 '미인도 OST' 공연을 통해 멋진 밴드 연주와 노래 실력을 선보였다.

특히 리더보컬 박해인 학생은 송가인처럼 어려서부터 판소리를 배웠고, 맑은 목소리가 매력적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끼와 재능을 가진 우리 광주지역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 준 가수 송가인 씨에게 감사하다"며 "시교육청은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을 통해 재능 있는 우리 광주 지역 학생들을 소개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운남중 학생밴드 '파토스'를 소개하는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두 번째 영상을 21일 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특히 가수 송가인이 출연해 광주지역 학생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세 트로트 가수 송가인은 21일 공개된 광주시교육청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두 번째 영상에 출연했다.

송가인은 앞서 광주 '미르밴드'를 소개했던 동방신기 출신 유노윤호처럼 끼와 재능을 갖춘 광주지역 학생들을 응원했다.

가수 송가인은 광주에 살고 국악과 줄

